봄날의 공원.

여행 중 누려보는 초록의 여유

스위스의 초록 공원
스위스 도시와 마을은 반드시 자연을 품고 있다
책 한 권 들고 공원 찾은 현지인들
근사한 피크닉 바구니 챙겨 데이트하는 커플들
풀밭에 누워 하늘 보며 도란도란 얘기하는 가족들

스위스에는 많은 도시가 있고, 그 모습도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대부분 도심 근처에 초록 정원과 공원이 있다는 것이다. 잠시나마 일상을 벗어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해 주어 현지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다. 간단한 피크닉을 즐기거나 잔디밭에 누워 책을 읽는 이들도 많다. 여행지에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스위스 공원과 정원, 광장을 소개한다.

루체른 호수 지역(Lake Luzern Region)

1. 드라이린덴 공원(Dreilindenpark)

"콘시파크(Konsipark)"라고도 불리는 드라이린덴 공원은 루체른 시에서 가장 큰 공원일뿐만 아니라, 화려한 뷰를 선사할 뿐 아니라 문화 공간도 되어준다. 루체른 음악 학교가 있던 곳으로, 앞으로는 미술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영국식 공원으로 많은 고목과 알프스까지 뻗어난 뷰가 35,000 평방 미터에 자리해 있다. 공원에는 성처럼 생긴 빌라 비코바로(Villa Vicovaro), 별채, 문루, 인공적으로 조성된 관문 유적, 대리석 조각, 동굴이 있다. 1929 년부터 이 공간은 루체른 시의 소유가 되었다. 루체른 시는 드라이린덴 공원이 자연과 문화를 위한 장소로 남도록 애쓰고 있다. 옛 "콘시(Konsi): 음악원" 건물은 아트 딜러에게 임대되었고, 가까운 미래에는 미술 작품과 카페, 도서관이 들어선 아트 빌라로 변모할 예정이다.

2. 리하르트 바그너 박물관(Richard Wagner Museum) 공원

리하르트 바그너는 이곳 루체른 호숫가에서 6 년 동안 살았다. 그의 이름을 따서 만든 박물관은 호숫가와 접한 드넓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기막힌 산봉우리 풍경이 펼쳐진다. 그가 살았던 건물은 대저택으로, 트리브셴(Tribschen)에 있다. 두 번째 부인인 코지마(Cosima) 및 자녀들과 함께 1866 년부터 1872 년까지 여기서 살았다. 저택 1 층에서는 바그너와 트리브셴에서의 생애를 엿볼 수 있는 컬렉션을 관람할 수 있다. 루체른 시는 1931 년 이 저택과 3 만 평방미터가 넘는 널찍한 공원을 처음 인수하여 일반에 공개했다. 박물관 옆 호숫가에서는 루체른에서 가장 풍경이 근사한 놀이터를 찾아볼 수 있다. 여러 벤치가 놓여 있어 잠시 앉아 바그너의 선율을 느껴볼 수 있다. 루체른에서 30 분만 걸으면 이 공원에 닿을 수 있는데, 호숫가 산책로만 따라가면 돼, 어려운 것 없다.

3. 우프쉐티(Ufschötti)

루체른 기차역에서 코 닿을 거리에 루체른의 초록 공간이 있다. 호숫가에 펼쳐진 광활한 녹지로, 루체른 시민의 절반 정도가 여름 해안을 찾으러 발걸음을 향하는 곳이다. 호숫가를 따라 200m 길이의 모래사장이 펼쳐져 있는데, 바다 같은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수영이나 선탠을 즐기는 이들도 많다. 큼직한 나무는 널찍한 그늘을 선사해 준다. 축구나 원반던지기, 바비큐를 즐기기도 한다. 여름에는 우프쉐티 키오스크나 비치 바에서 음식과 음료를 판매한다. 샤워 시설과 화장실도 잘 갖췄다. 루체른 기차역에서 남쪽으로 몇 분만 걸어가면 된다.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

4. **뵈겔리개르틀리(Vögeligärtli) 공원**

서커스 아티스트와 노점상들이 사람들에게 흥을 돋워주는 곳으로, 지금은 루체른 시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초록 공간 중 하나가 되었다. 뵈겔리개르틀리라는 이름은 "새 정원(bird garden)"이라는 뜻으로, 1901 년 공원 내에 지어진 새장에서 유래했다. 도시 한복판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장소는 과거에 여러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셈파허플라츠(Sempacherplatz), 셈파허가르텐(Sempachergarten), 잉글리셔 가르텐(Englischer Garten), 첸트랄플라츠(Zentralplatz), 첸트랄마테(Zentralmatte)가 그런 여러 이름들이다. 이 공원이 셈파허플라츠라 불리던 당시 여기에 있던 가스 공장이 1899 년 이사를 가자, 그 공간을 새로운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면서 휴식과 레저가 이 공간을 찾게 되었다. 점차 공연 예술가들과 노점상이 이곳을 찾게 되었고, 그중에는 필라투스 서커스(Pilatus Circus)와 아레나 뷜만(Arena Bühlmann)도 있었다. 그 후 거대한 녹지의 곳곳에 개발이 진행되기도 했다. 1935 년에는 성 루크 교회(Lukaskirche)가, 1950 년에는 중앙 도서관이 지어지기도 했던 곳이다.

취리히(Zurich)

1. **MFO 공원**

약 100 년 전 기계 공장, 마쉬넨파브릭 오엘리콘(Maschinenfabrik Oerlikon, MFO)이 있었던 곳으로, 건축적으로 매혹적인 공원에서 과거의 공간을 증언하고 있다. 여름이 되면 다양한 문화 행사가 공원에서 열리는데, 야외 영화나 각종 축제를 즐길 수 있다. 1990 년대까지만 해도 오엘리콘은 산업 건물이 모여 있는 지역이었다. "파크 하우스(Park-Haus)"는 격자형 철골 구조로 덮여 있는데, 녹지로 둘러싸여 있으며 3 면이 개방되어 있어, 이전 공장 건물의 크기를 짐작게 해준다. 아연으로 코팅된 이중 벽면은 와이어로 지지한 식물이 화려하게 뒤덮고 있다. 버지니아 덩굴이 가을이면 화려한 색을 뽐내고, 여름이면 짙은 초록이 청명하게 빛난다. 계단과 돌출형 발코니가 수상 경력을 자랑하는 건물에서 잠시 쉬어가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짓한다. 꼭대기 옥상에는 선 데크가 마련되어 있는데, 취리히 노르드(Zurich-Nord) 구역의 신시가지 풍경을 선사해 준다.

2. **이르헬(Irchel) 공원**

이르헬 공원(Irchelpark)은 일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자연에 둘러싸인 시간을 보내기 좋은 곳이다. 나무와 덤불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에서 이 휴식 같은 공간을 분리시켜 준다.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urich)의 이르헬 캠퍼스 학생들과 마주치는 일이 드물지 않은 곳이기도 하다. 대학 건물은 공원 위쪽 마법 같은 공간에 마련되어 있다. 이 공원은 1980 년 초반에 조성되었는데, 취리히 시민들의 인기 있는 휴양지가 되어주었다. 약 10 만 평에 달하는 부지는 스위스의 젊은 공원 중 가장 큰 것으로, 뚜렷한 선을 따라 조성된 전통적인 도심 공원과 강렬한 대조를 이룬다. 공원의 아랫부분에는 인공 호수가 있는데, 여러 물고기, 새, 오리가 살고 있으며 초록 들판과 널찍한 놀이터도 있다. 실컷 뛰어놀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널찍한 공간을 남겨둔 것이다. 지형은 큰 언덕으로 지형 사이에 활기 있는 개성을 창조해 낸다. 대학의 기술적인 건물과 대조적으로 자연적인 건축 자재와 야생이 공원의 형태를 이루어 가고 있다.

3. **취리히 다육식물 컬렉션(Sukkulenten-Sammlung Zürich)**

1931 년에 시작된 다육식물 컬렉션은 다육 식물에 있어 세계 최대이자 가장 중요한 컬렉션 중 하나로 꼽힌다. 취리히 도심의 호반 미텐케(Mythenquai)에서 이 컬렉션을 만나볼 수 있다. 7 개의 온실과 암석정원에 78 개 식물과에 속하는 4,400 종 이상의 다양한 다육식물이 있는데, 총 20,000 여 종의 선인장과 다육식물이 정성스러운 보살핌을 받고 있다. 수분을 저장하고 수액이 풍성한 다육식물 중에는 선인장 외에도 아가베, 알로에, 두꺼운 잎 식물 등이 있다. 이곳에서 전 세계에 알려진 다육식물 종의 절반가량을 발견할 수 있다. 식물의 기현상에 대한 변화무쌍한 전시가 다육식물 컬렉션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 식물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육식물 컬렉션은 7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 세계 식물 가든 200 여 곳과 씨앗을 교환해 왔다.

4. 리터파크(Rieterpark)

도시와 이렇게 가까우면서도 소음과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 취리히 최대의 도심 공원은 고요, 휴식, 다채로운 식물로 꽉 찼다. 70,000m2 나 되는 공간은 취리히 근처의 엥에(Enge) 지구에 있다. 공원과 같은 이름의 박물관이 들어선 빌라도 아름답다. 1855 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빈터투어(Winterthur) 출신의 산업가 리터 가문이 19 세기 후반에 소유하던 것으로 1945 년에 취리히 시가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 공원의 나무 몇 그루는 당시의 것으로, 150 년이 넘는 수령을 과시한다. 맑은 날에는 알프스도 보인다.

5. 젝세로이텐 광장(Sechseläutenplatz)

취리히의 벨뷔(Bellevue)와 오페라 하우스(Opera House) 사이에 있는 광장으로,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휴식 같은 공간을 만들어 주고 있다. 이 광장에서는 어린이나 어른 모두 걷고, 앉고, 놀 수 있다. 16,000 평방미터의 면적은 발스(Vals) 산 규암으로 마감되어 있다. 나무가 많고, 앉을 곳도 많으며, 물도 가까워 도심 속 휴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여기서는 매년 봄, 취리히에서 제일 인기 있는 페스티벌인 “젝세로이텐”이 열린다. 장작더미 위에 놓인 인공 눈사람 “뵈그(Böögg)”가 불타며 겨울에 작별을 고하고 여름을 맞이하는 축제다. 스위스 국립 서커스단인 크니(Knie)의 연례 공연 및 크리스마스 마켓이 열리기도 한다. 현재 사람들이 거니는 이 광장은 한때 물속에 잠겨 있었다. 중세가 되어서야 젝세로이텐 광장의 해안이 물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2 차 세계대전 동안 이 공간은 감자밭과 유채밭으로 바뀌었다가 마침내 도심 공원으로 변모하게 된 역사도 있다.

6. 취리히호른(Zürichhorn) 공원과 중국 정원(Chinagarten)

취리히 호수 하류 지역으로 내려가면 초록의 공원이 여럿 등장하는데, 여름철이면 항상 분주한 공간이다. 인라인스케이트, 수상 스포츠, 장신구 판매, 스트리트 아트를 위해 모인 이들로 항상 다채롭다. 고요하고 평온한 시간을 원한다면 호숫가 산책로 끝자락에 있는 취리히호른 공원과 근처의 중국 정원을 찾아 일상을 벗어나 볼 수 있다. 취리히호른과 취리히 제펠트(Zurich-Seefeld)에 있는 호숫가에서는 시민들에게 인기 있는 수영장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는 커다란 바위나 몽돌 해변이 있어 취리히 호수로 접근하기가 좋다. 그늘진 나무와 쉬어갈 공간이 많은데, 블라터비제(Blatterwiese)는 대표적인 스팟이다. 장 팅겔리(Jean Tinguely)의 조각품 '호이레카(Heureka)'는 취리히호른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하여 호반 산책로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다.

7. 벨부아(Belvoir) 공원

취리히의 여러 공원 중에서도 이 보석 같은 공간은 19 세기 초, 고전주의 스타일의 빌라를 위해 아름다운 공원 한복판에 지어졌다. 현재 이 빌라에는 벨보아파크 호텔 경영 학교 및 레스토랑이 들어서 있다. 벨보아 공원은 취리히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조경 정원 중 하나다. 널찍한 잔디밭, 대형 풀장, 고목, 사색에 잠기기 좋은 평화로운 공간이 마련된 특별한 휴식 공간이다. 이 공원의 매력은 도시, 호수, 산의 화려한 뷰를 선사하는 위치로, 예술적인 지형 디자인과 나무 배경 디자인도 눈에 띄는데 당시에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1985 년부터는 120 종이 넘는 꽃이 피어나는 아이리스 및 옥잠화 정원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

8. 취리히의 식물원

취리히 대학(University of Zürich)에 자리한 보타니컬 가든(Botanical Garden)은 봄에 그 빛을 발한다. 알프스 장미를 비롯한 다채로운 꽃이 만발한 사이를 거닐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취리히에서 날씨가 안 좋은 날 찾아 화려한 트로피컬 꽃을 감상하기도 좋다. 이 "새로운" 식물원은 과거에 리스바흐(Riesbach)에 있었던 빌라 쉐나우(Villa Schönau) 공원에 있다. 1977 년에 샨첸그라벤(Schanzengraben)에 있던 구 식물원이 너무 비좁아 지자, 이곳에 새롭게 자리 잡게 되었다. 그 후로 약 53,000 평방미터의 면적에 전 세계 다양한 기후대에서 온 약 9,000 종의 식물을 전시하고 있다. 식물원은 세 개의 돔형 쇼 하우스로 유명하다. 각 하우스는 열대 우림, 저지대 우림, 열대 건조지라는 3 개의 특정 기후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널찍한 들판과 연못이 잠시 머물다 가라고 손짓한다. 여러 테마 투어에서는 다양한 하이라이트와 정원의 특징을 상세히 살펴볼 수 있다. 다양한 식물의 필요에 맞게 여러 구역으로 조성된 이 정원은 과학의 실험실이자 멸종 위기에 처한 식물 종을 위한 방주이다. 그리고, 취리히 한복판에 있는 초록의 오아시스다.

바젤(Basel)

1. 메쎄플라츠(Messeplatz)

'전시장 광장'이라는 뜻으로, 대규모 전시가 열리는 바젤 메쎄(Messe)의 광장은 전시가 없을 때라도 언제나 둘러보기 좋은 공간이다. 작은 바젤이라는 뜻의 '클라인바젤(Kleinbasel)' 구역 한복판을 차지한 널찍한 공간은 수려한 건축물에 둘러싸여 있다. 105m 높이의 모르거 & 데겔로(Morger & Degelo) 타워를 비롯해, 헤르조그 & 드 뫼롱(Herzog & de Meuron)이 "하늘을 향한 창(window to the heavens)"을 달아 새롭게 지은 건물이 대표적이다. 신제품을 전시하는 무스터메세(Mustermesse)나 아트 바젤(Art Basel), 혹은 바젤 월드(Basel World) 모두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절반이 최신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바젤을 찾을 때 바젤의 유명한 메쎄 광장에 모일 수밖에 없게 된다. 클라인바젤 한복판에 조성된 널찍한 공간에는 인상적인 건물과 140,000 ㎡가 넘는 전시 공간이 있으며, 홀과 50 년대에 만들어진 시계, 105 미터 높이의 타워와 헤르조그 & 드 뫼롱의 새로운 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어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낸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축물 이외에도 "바 루즈(Bar Rouge)"또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높은 건물 31 층에 위치한 덕에 멀리 국경까지 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바라보며 음료를 한잔하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미있게도, 이곳을 잘 아는 이들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아름다운 전망을 지닌 "이 집에서 가장 작은방"으로의 여행을 추천하는데, 바로, 화장실이다.

2. 빌라 벤켄호프(Villa Wenkenhof)

매력적인 프랑스식 정원과 리차드 세라(Richard Serra)의 조각품이 놓인 영국식 공원이 있는 빌라 벤켄호프는 바젤의 베르사유를 미니어처로 재현한 곳이다. 이 역사적인 성벽 뒤에는 오랜 역사가 깃들어 있다. 벤켄베르크(Wenkenberg)라는 이름은 중세에 최초로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농장을 지칭했다. 현재 이 빌라의 웅장한 공간은 각종 행사를 위해 대여할 수 있다. 프랑스식 정원은 일요일에만 개방된다.

3. 바젤 식물원

바젤 대학 식물원의 역사는 16 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원 중 하나로 꼽힌다. 도시 한복판에서 다양한 식물을 만나볼 수 있는 평화로운 공간이다. 1589 년 카스파르 바우힌(Caspar Bauhin)이 설립한 곳으로, 원래는 라인스프룽(Rheinsprung)의 옛 대학 아래에 자리해 있었으며, 바젤의 약사와 의사들이 약을 만들고 연구 목적으로 사용했던 다른 개인 정원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카스파 바우힌은 해부학과 식물학을 가르친 최초의 교수로 '식물학의 아버지'로도 불렸던 인물이다. 19 세기에 조성된 스팔렌토르(Spalentor) 인근 정원의 하이라이트는 역사적인

'빅토리아하우스(Viktoriahaus)'이다. 인기 있는 열대 유리온실에서는 열대 우림의 매혹적인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베른(Bern)

1. 로젠가르텐(Rosengarten)

베른의 장미 정원, 로젠가르텐은 꽃을 좋아하는 이들에게 사랑받는 공원으로, 휴식을 취하기 완벽한 장소다. 장미 정원은 아레(Aare) 강이 구시가지를 감아 도는 아름다운 뷰를 선사한다. 공원에는 220 종의 장미, 200 종의 아이리스, 28 종의 철쭉이 있다. 1765 년부터 1877 년까지 장미 정원의 베른의 공동묘지로 사용되기도 했다. 1913 년부터 풍성한 꽃과 연못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공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1956 년부터 1962 년까지 새로운 디자인을 거쳐 철쭉과 진달래, 아이리스도 선보이게 되었다. 파빌리옹과 독서 정원이 있어 쉬어가기 더욱 좋다. 언덕 위 명당자리에 자리한 로젠가르텐 레스토랑에 앉아 베른의 아름다운 구시가 전망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융프라우 지역(Jungfrau Region)

1. 본스테텐(Bonstetten) 공원

본스테텐 공원은 툰(Thun) 호숫가에 바로 접해 연중 휴식 같은 공원이 되어주고 있다. 바비큐장, 탁 트인 잔디밭, 놀이터가 있어 가족들에게도 인기다. 공원과 접한 그바틀리셴모스(Gwattlischenmoos)에는 작은 숲이 있고, 여러 길이 나 있고, 자연이 가까이 자리해 있어 긴 산책을 즐기기 완벽하다. 공원에는 본슈테텐구트(Bonstettengut)라는 저택이 있는데, 슈트래틀링엔(Strättligen) 영주가 거주하던 곳이다. 1273 년 문서에 그 주인이 루돌프 폰 슈트래틀링엔이었다고 명시되어 있다. 1763 년부터 1811 년까지 에마누엘 피셔(Emanuel Fischer)가 현재 공원의 핵심부를 조성했는데, 광활한 정원이 돋보인다. 1764 년에는 이 저택의 이름이 벨러리브(Bellerive)로 바뀌고 베른(Bern) 칸톤의 소유가 되었으며, 1960 년에는 툰 시의 소유가 되었다. 지금은 벨러리브 저택에 툰 지역 음악 학교가 자리해 있다.

2. 샤다우(Schadau) 공원

툰(Thun) 호숫가에서 오리에게 먹이를 주거나,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기 좋은 곳이다. 숲길을 따라 이어진 산책로나 도로를 따라, 혹은 들판을 거닐어 봐도 좋다. 곳곳에는 쉬어갈 만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샤다우 공원은 특히 젊은이들과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매력을 품고 있다. 미로를 통과하는 재미 뒤에 놀이터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미니어처 증기 기관차가 공원을 가로지르는데, 격주마다 운행된다. 배가 고프지 않을 때에는 그라빠나 커피 한 잔을 홀짝이며 파노라마를 감상해도 좋다. 역사에 관심이 많다면 19 세기에 그려진 툰 도시 파노라마가 더욱 특별해 보일 것이다.

발레(Valais) 지역

1. 슈톡칼퍼(Stockalper) 성과 슈톡칼퍼 정원

브리그(Brig) 사람들이 가진 슈톡칼퍼 궁전에 대한 자부심은 대단하다. 카스파 슈톡칼퍼(Kaspar Stockalper)가 17 세기에 지은 성이다. 슈톡칼퍼(1609–1691)는 “심플론(Simplon)의 왕”이라 불렸는데, 상인이자, 은행가, 기업가, 장교, 정치인이었던 인물로, 1651 년부터 1671 년까지 슈톡칼퍼 성을 지었다. 이 성은 17 세기에 건축된 스위스 개인 건물 중 가장 큰 것이다. 궁전에는 세 개의 탑이 있는데 금박을 입힌 양파 돔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슈톡칼퍼의 막대한 부를 반영한다. 슈톡칼퍼의 일생을 고성

내의 박물관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당시 소금 거래와 운송을 독점했던 인물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궁전 홀에서는 18 세기에 파리에서 디자인된 벽지와 실크 페인팅을 감상할 수 있다. 궁전의 지하 창고, 아케이드, 홀을 둘러본 뒤에, 장미 덤불이 있는 궁전 정원에서 꿈결 같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수도원과 예수회 교회, 브리그 구시가지의 탑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준다. 새롭게 단장한 정원에는 고성 소유의 포도 넝쿨과 다양한 식물이 자리해 있는데, 널찍한 정원에 쾌적한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 안타깝게도 이 정원이 원형이 17 세기에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고성의 원형 구조가 표기된 역사적 자료에 의하면 약 10,000 평방미터가 넘는 정원 부지가 조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정원은 두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다. 물과 사각형으로 조성한 공원과 희귀 식물로 장식한 과일 정원이다. 흥미로운 방식의 나무 배치 덕분에 공원의 여러 부분이 서로 연결된다. 나무가 없는 경사진 잔디밭은 언덕의 포도밭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성으로 향하는 흥미로운 시야를 선사해 준다. 장미 정원의 아치형 지하실은 널찍한 공간과 대조를 이룬다. 가이드 투어에 참가하면 웅장한 홀과 예배당, 정원을 둘러볼 수 있다.

2. 체르마트(Zermatt)의 리콜라(Ricola) 허브 가든

캔디로 유명한 리콜라가 재료 수급을 위해 운영하는 허브 가든이 체르마트에 있다. 가이드 투어도 진행한다. 일 년 내내 방문할 수 있는데, 허브 꽃이 만발하는 5 월부터 9 월까지는 꼭 한 번 들러볼 만하다. 체르마트 마을 끝에 자리한 마터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 행 케이블카 역 맞은편인 첸 슈테켄(Zen Stecken) 버스 정류장에서 30 분 정도 걸으면 나오는 블라텐(Blatten) 마을에 위치해 있어 하이킹을 겸하기 좋다.

자료제공: 스위스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

Switzerland Tourism Korea
77 Songwol-gil, Jongno-gu, Seoul 03165
MySwitzerland.com